

# 보르도가 백년전쟁 때 프랑스 아닌 영국 편을 든 이유는?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세계사를 바꾼 와인 이야기

나이토 히로후미 지음, 서수지 옮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와인 세계를 뒤바꿔놓은 국가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경제력과 와인에 대한 선호도는 와인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또한 대형 여객기 등장과 맞물린 '하늘의 시대'는 호화로운 미식, 특히 명품 와인에 새롭게 눈을 뜨게 했다.

60년부터 73년까지 와인 소비량은 2배 증가했는데 당시 미국인들은 보르도 명품 와인을 구매했다. 그 가운데 프랑스 5대 사도의 명품 와인인 대한 선호도는 유독 높았다. 그러나 프랑스 와인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직접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와이너리를 건립하고 와인 양조에 돌입한 것이다.

로베르 몬다비는 이 시기 미 와인 제조업자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몬다비로 대변되는 캘리포니아 와인은 이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발생한 기술 혁신을 이끈 선두주자로 인식된다. 90년대 이후 실리콘밸리에는 IT기술 개발 열풍으로 애플



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메타)의 마크저커버그 등이 나타났다. IT의 눈부신 발전처럼, 60년대-70년대 걸쳐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와인은 역사 이래 많은 예술가, 철학자들에게 영감과 상상력을 제공한 '음료'다. 와인에 대한 명언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어떤 이는 '신의 음료'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세계로 가는 여권'이라고 정의한다. 사상가 볼테르는 '와인은 9월의 신성한 주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세계사를 바꾼 와인 이야기'는 흥미로운 책이다. '천의 얼굴을 가진 매력적이고도 위험천만한 와인 세계사 이야기'라는 수사가 말해주듯 와인을 모티브로 한 이색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세계사로 풀어내는 명화의 비밀', '유럽 왕실로 본 세계사' 등을 펴낸 나이토 히로후미가 저자다. 책은 와인이 어떻게 세계사를 바꾸었는지 재미난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낸다. 질문 하나하나가 이색적이다. 일테면 이런 것들이다. 와인은 어떻게 중세 가톨릭교회의 주요 수익 창출 수단이 됐을까? 보르도가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가 아닌 영국 편을 든 이유는? 등등의 질문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와인은 고대 그리스 민주정 탄생과 연관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지형은 '산이 바다를 향해 내달리는' 형상이어서 왕, 귀족과 같은 지배계급이 토지를 독점하기 어려웠다. 대신에 좁은 농토를 소유한 농

민들이 전쟁 포로를 노예로 부리며 농사를 지었다. 평민계급이었지만 농민들은 와인농사를 지어 나만의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했다.

이와 연계된 토론의 정치문화는 민주주의 발전으로 전이됐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등 철학자, 수학자 등을 배출하며 눈부신 문명을 일궜다.

오늘날 독일은 프랑스, 이탈리아에 버금가는 와인 강국이다. 세계 최고 명산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라인강이 있기까지는 카롤루스 대제의 안목이 빛을 발했다. 사실 카롤루스 등장 이전에는 라인강가에 포도밭이 없었다.

어느 날 라인강 일경의 임을 방문한 카롤루스가 대제는 요하니스베르크 산 인근을 보게 됐다. 별이 잘 들고 눈이 잘 녹는 땅이었다. 포도 재배에 적합한 곳을 직감한 그는 포도를 심을 것을 명했다. 세월이 흘러 라인강은 세계적 포도 산지로 명성을 얻게 된다.

또 다른 이색적인 에피소드도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 당시 보르도 지역은 줄곧 영국 편을 들었다. 보르도, 부르고뉴는 프랑스 판도 안에 있었지만 영국 왕의 영토였다.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는 보르도를 되찾아 편입했다. 샤를 7세는 '보르도 특권'을 박탈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소크라테스는 적정량의 와인을 조금씩 마시면 와인은 이성애해를 끼치지 않고 유쾌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했다. 니콜라 몽시외 작 '소크라테스와 아스파시아의 논쟁'

않았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후일 세계 2대 와인 명산지를 지도에 새기는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

이밖에 책에는 와인이 바꾼 세계사의 명장면들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수록돼 있

다. 편집자는 "신의 음료" 와인이 인간의 욕망과 충돌하고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키며 바꿨던 세계 이야기는 다채롭고 흥미진진하다고 언급한다.

(사람과 나무사이·1만8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철학의 지혜

최영원 지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철학을 찾는다. 철학이 정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질문을 같이 붙잡고 버티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삶을 단단한 삶으로 바꿔주는 철학을 읽는 시간. 최영원 작가의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철학의 지혜'는 그런 이들을 위한 철학 입문서이자 감정 회복의 동반자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치유와 방향을 찾기 위해 멈춤과 비움을 선택한 붓다와 노자,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법을 깨달았던 아우렐리우스와 톨스토이, 진짜 자신의 삶을 살라고 강조한 아우구스티누스, 몽테뉴, 키르케고르 등 동서양 철학자 45명의 사유와 지혜를 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도록 구성돼 있다. 글 끝에는 철학자의 명언을 필사할 수 있도록 필사 코너도 마련해놓았다.

철학이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현대까지 철학자들의 명언은 짧지만 울림 있게 다가온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다."(장자)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세네카) "사람들은 단순하고 눈앞의 필요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는 자는 언제나 속는 자를 찾을 것이다."(니콜라 마키아벨리)

하루에 한 장씩,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철학 한 줄을 곱씹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보아스·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금융개혁 2035

최홍식 지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를 꾸렸다. 경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며 4대 개혁 의제를 제시했다. 규제개혁, 행정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금융개혁'.

금융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언어가 아니다. 고금리는 가계 부채로, 저금리는 부동산 과열로 이어지듯 금융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고, 균형을 잃을 경우 일자리와 지역경제까지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한국 금융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구조적 불균형을 안고 있다.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대외 변수에 취약한 자본시장까지.

최홍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개혁 2035'를 펴냈다. 최 전 원장은 수십 년간 현장과 정책의 경계를 오가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성장·고령화·디지털 전환 등 복합 위기 시대에 한국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총체적으로 그렸다.

총 5부로 구성된 책은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등 당면 과제부터 디지털 전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독 체계 개편, 중장기 전략까지 한국 금융의 전 분야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마지막 장에 제시된 '2035년을 향한 10대 전략'은 금융 산업의 방향뿐 아니라 국가의 복지 기반과 자산 형성 구조까지 아우른다. 최 전 원장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이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책은 기술과 자본, 규제와 문화가 동시에 급변하는 시대에, 금융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임을 강조한다.



(자우야이카데미·2만4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한국 반도체의 미래 3년

박준영 지음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 하지만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최근 한국 반도체 산업은 위기의 정점에 놓여 있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에 나섰고, 중국은 기술 자립을 서두르며, TSMC를 앞세운 대만은 수출과 협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반도체는 리더십, 기술, 생태계 전반에서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20년 넘게 반도체 산업을 연구해온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장이 최근 펴낸 '한국 반도체의 미래 3년'은 총체적 위기 속에서 한국 반도체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책은 2027년을 반도체의 골든타임이라고 정의한다. 앞으로 3년여의 시간 동안 한국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책은 우선 '왜 삼성은 위기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삼성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리더십이 산업의 규모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걸맞지 않으며,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의 분리, 자동화 우선 전략이 오히려 수출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이어서 TSMC와 비교해 삼성의 고립적 생태계를 비판한다.

저자는 향후 3년간의 과제를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025년에는 경영 패러다임 전환과 지원 중심 조직 개편, 2026년에는 기술 위계 해체와 엔지니어 역량 강화, 2027년에는 정부의 생태계 지원과 산업 내 불평등 해소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온 '가려진 영웅'들도 소환한다. 여성 오퍼레이터, 자동화 설비 엔지니어 등 이름 없는 수많은 기술자들의 헌신으로 한국 반도체를 지탱해왔다는 점을 조명하며, '사람'과 '사회'를 위한 반도체 산업의 전환을 제안한다.



(북루트스·1만98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건강기능식품 300ml x 3팩, 9000ml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